이재명 “IRA, 韓기업 우려 해소 기대” 골드버그 “해결 위해 노력”

이재명 “굳건한 한미동맹…전술핵 재배치 불필요”
골드버그 “양국 동맹, 글로벌 포용전략으로 확대”
이재명 “이태원 참사 관련 美 애도와 위로 감사”
골드버그 “너무 많은 젊은이들 희생…깊은 애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일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와 만나 IRA(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한 우리 측의 우려 해소에 협력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골드버그 대사는 “양국 동맹에 걸맞는 방식으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골드버그 대사와 만나 “최근 논의되고 있는 미국의 IRA에 대해서 우리 기업과 산업계가 갖고 있는 우려를 해소하는 데 양국이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한미동맹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발전을 위해 한국 측의 우려가 합리적으로 해결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골드버그 대사는 “IRA와 관련된 한국 내의 우려와 한국 기업의 많은 우려를 잘 알고 있고 인지하고 있다”며 “현재 동맹국인 한국과 협력 통해 양국 동맹에 걸맞는 방식으로 이 현안의 해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화답했다.

이 대표와 골드버그 대사는 굳건한 한미동맹을 재확인했다.

이 대표는 “최근에 북한의 잇따른 무력도발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크게 고조되고 있다”며 “이런 때일수록 굳건한 한미동맹과 강력한 한미연합 전력을 바탕으로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한반도 평화를 지켜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미동맹의 강력한 확장 억제력이 지속되는 한 우리 대한민국, 그리고 한반도 내에는 어떤 형태의 핵무기도 필요하지 않다고 확신한다”며 “골드버그 대사가 언급한 것처럼 한반도의 전술핵 재배치 주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무책임한 이야기라는 점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골드버그 대사는 “내년에 위대한 한미동맹이 70주년을 맞는데 미국과 한국 의회에서 초당적인 두 당의 지지를 받고 있는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이 점이 중요한 것은 양국 동맹이 글로벌 포용전략으로 거듭되고 확대되는 가운데 미국뿐 아니라 한국에서도 양당의 초당적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기 때문”이라고 했다.

최근 일어난 이태원 참사에 대한 서로의 유감 표명도 있었다.

이 대표는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미국 정부와 미국 국민이 보내준 애도와 위로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미국 국민도 2명이 사망하고 3명이 부상당했다고 알고 있는데 희생자 가족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부상자의 조속한 쾌유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골드버그 대사는 “주말에 있던 참사 같은 비극에는 국경이 없고 또 많은 한국인뿐 아니라 외국인들의 안타까움을 우리가 추모하고 있는 가운데 깊은 위로와 애도의 말씀을 드린다”며 “너무 많은 젊은이들이 꿈을 채 펼쳐보이지 못하고 희생된 것에 가슴이 아프다”고 애도를 표했다.

그러면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말한 것처럼 미국은 이 비극적 시기에 한국과 함께한다”며 “희생자 가족에 깊은 애도를 표하며 부상자의 조속한 쾌유를 바란다”고 전했다.

박성준 대변인은 접견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비공개 접견에서 “(이 대표가)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 핵실험을 막는 데 중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핵실험 가능성을 막는 데 중국의 협조 요청 등의 가능성을 열어놓는 것이 어떠냐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최이슬 기자

尹대통령, 이태원 추모 공간 찾아 ‘헌화’

윤석열 대통령은 1일 오전 서울 용산구 이태원역 1번 출구 인근에 마련된 임시 추모공간에서 헌화와 묵념을 하며 고인들을 추모했다.

이날 오전 녹사평역 광장 이태원 사고 사망자 합동분향소에서 헌화한 후 윤 대통령은 곧장 이태원역 1번 출구로 이동했다.

윤 대통령은 시민들이 빼곡하게 쌓아둔 국화꽃과 간식 등 위에 흰 국화꽃을 한 송이 올려둔 뒤 약 10초간 묵념했다.

윤 대통령과 동행한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도 윤 대통령와 함께 헌화와 묵념을 이어갔다.

묵념을 마친 윤 대통령은 침통한 표정으로 1번 출구 입구를 빼곡히 채운 포스트잇 메시지를 한참 바라보기도 했다.

포스트잇에는 ‘어째서 축제를 즐기러 온 그대들이 피로 얼룩져야만 했나’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에요’라는 추모객들의 메시지가 적혀 있었다. 영어, 중국어, 일어로 된 문구도 눈에 띄었다.

윤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에도 메시지를 가리키며 추모객들이 쓴 위로의 문구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이후 윤 대통령은 약 10m 가량을 이동해 이태원 사고가 발생한 골목 입구에 멈춰 섰다. 이어 한 총리 등과 골목길을 한 번 더 살피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참사 다음날인 30일 대국민담화를 마친 뒤 이태원 현장으로 곧장 이동해 상황을 점검했다.

10월 31일에는 부인인 김건희 여사와 함께 서울시청 광장에 차려진 합동 분향소를 찾아 헌화와 묵념을 하고 희생자들을 애도했다.

김재환 기자

이상민 “이태원 참사 유가족·국민 마음 살피지 못해 사과”

국회 행안위 이태원 사고 현안보고 앞서 사과

‘이태원 참사’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일 “소중한 가족을 잃은 유가족과 슬픔에 빠져있는 국민의 마음을 미처 세심하게 살피지 못했다”며 사과했다.

이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본관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이태원 사고 현안보고에 앞서 이채익 행안위원장이 지난달 30일 발언으로 제기된 여러 지적에 대해 할 말이 있는지를 묻는 말에 이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우선 “무엇보다 먼저 이번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의 명복을 빈다. 특히 유가족분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번 사고의 충격으로 이 시간에도 병상에서 치료와 고통을 받고 계신 분들의 빠른 회복과 쾌유를 기원한다”고 운을 뗐다.

이어 “국무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아들과 딸을 둔 한 아버지로서 이번 사고가 너무 황망하고 안타깝다”며 “너무도 비현실적인 이 상황을 저로서도 받아들이기 어렵고 참담함을 이루 말로 표현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가는 국민의 안전에 대해 무한 책임이 있음에도 사고 발생에 대해 국민 안전을 책임지는 주무 부처 장관으로서 이 자리를 빌려 국민 여러분께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특히 ‘경찰·소방을 미리 배치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다’, ‘선동성 정치적 주장을 해서는 안 된다’고 발언해 논란이 불거진 점에 대해서도 사과했다. 그는 “최근 언론 브리핑 과정에서 드린 말씀으로 적지 않은 분들이 마음의 상처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경찰의 사고 원인 조사 결과가 발표되기 전까지는 섣부른 추측이나 예상은 삼가야 한다는 취지에서 드린 말씀”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결과적으로 소중한 가족을 잃은 유가족과 슬픔에 빠져있는 국민의 마음을 미처 세심하게 살피지 못했다”며 “이 점 다시 한번 깊은 유감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가는 국민의 안전에 대해 무한 책임이 있음에도 이번 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 국민 안전을 책임지는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이 자리를 빌려 국민 여러분께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하며 자리에서 일어나 허리를 굽혔다. 나아가 “이번 일을 계기로 삼아 더욱 사고 수습과 사고 원인 규명에 주력을 하고 대형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혼신의 힘과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국민 여러분께 드린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앞서 지난달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이태원 사고 관련 긴급 브리핑’에서 핼러윈 데이를 맞아 이태원 일대에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된 만큼 경찰·소방을 적절하게 배치했느냐는 물음에 “코로나19가 풀리는 상황이 있었지만 파악하기로는 예년과 비교했을 때 특별히 우려할 정도로 많은 인파가 모였던 것은 아니었다”고 답했다.

이어 “경찰·소방 인력을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었던 문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이태원은 (예상 인파가) 예전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것이어서 평시와 비슷한 수준의 병력이 배치됐던 것으로 파악한다”고 말해 논란이 불거졌다.

서선옥 기자

호남신문 광고안내

광고주는 언론 종사자와 더불어
신문산업 발전의 동반자입니다.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단 한 줄의 광고도
감사히 지면에 반영하겠습니다.
믿고 맡겨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대에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문의 (062) 228-2580

축하·근조화환 전문점

전국 꽃배달 서비스
60,000
농장직영 광주꽃도매
직통전화 010-2400-7774
주문팩스 062-946-0053